

매출 16조·영업익 5.5조 신기록... “연내 HBM3E 12단 공급”

SK하이닉스 컨퍼런스콜

2분기 매출·영업익 사상 최대
AI 메모리 중심 투자 확대 방침
“HBM 생산능력 2배 이상 확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HBM 생산능력(CAP A)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강세를 타고 HBM 공급을 확대해 경쟁우위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4분기부터는 HBM3E 12단 공급을 시작함으로써 올해 HBM 매출은 300% 이상 늘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고대역폭 메모리(HBM) 효과로 매출 16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HBM 수요가 늘어난 데다, 고성능·고용량 낸드 수요도 크게 늘며 1분기에 이어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25일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HBM의 내년 출하량은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HBM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3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 데이터 처리 성능을 개선한 메모리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함께 AI서비스 구현에 사용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주축인 엔비디아에 4세대 HBM인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엔비디아의 차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매출 16조4233억원, 영업이익 5조4685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뉴스1

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출시 계획이 앞당겨지며 SK하이닉스의 HBM3E 납품 계획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3분기 내 HBM3E 12단 양산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제품을 3분기 내 양산해 경쟁우위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CFO)은 “2분기에 HBM3E 출하를 크게 확대해 3분기에는 HBM3E 출하량이 HBM3(4세대)를 크게 넘어설 것”이라며 “올해 HBM3E 출하량은 전체 HBM 출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제품의 공급 안정성 확보도 자신했다. 김 부사장은 “8단에 비해 12단 제품

의 기술 난도가 높긴 하지만, 이미 HBM3 12단 제품 양산 경험이 있고, HBM3E 8단 제품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HBM3E 12단 제품은 이미 주요 고객에 샘플로 제공했고, 계획대로 3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며 “4분기에는 고객에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SK하이닉스는 HBM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규 생산기지로 낙점했던 청주 M15X는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내년 하반기 양산 개시를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현재 부지 공사가 한창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은 예정대로 내년 3월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다만, 김 부사장은 HBM이 D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용을 우

렷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방 시장 상황과 공급망 내 공급 여력을 확인해서 신중하게 투자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또 낸드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고용량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eSSD)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AI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센터용 서버 등 낸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낸드 사업의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2분기 SK하이닉스의 낸드 실적은 eSSD와 모바일용 제품 위주로 판매가 확대됐으며, 이 가운데 eSSD는 1분기보다 매출이 약 50%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에도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

데, 온디바이스(On-Device) AI를 지원하는 새로운 PC와 모바일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며 여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반 메모리 제품 수요도 완연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내다봤다.

◆ SK하이닉스 상반기 성과급, 월 기본급 150%

SK하이닉스는 이날 연결기준 올해 2분기 매출액 16조4233억원, 영업이익 5조468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률은 33%, 순이익은 4조12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6년 만에 5조 원대 실적을 달성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HBM,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eSSD)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강세와 함께 D램과 낸드 제품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1분기 대비 매출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D램에서는 지난 3월부터 양산에 들어가 공급을 본격화한 HBM3E와 서버 D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이 확대됐다. 특히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 8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250% 이상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SK하이닉스가 올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성과급 규모도 월 기본급의 150%로 책정됐다. 솔리다임을 제외한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으면서 올해 상반기 생산성 격려금(PI)도 최대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PI는 오는 26일 지급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HD현대, 조선·중공업·건설 등 실적 호조

2분기 매출 1.7조·영업익 8799억
“안정적 실적 흐름 유지해 나갈 것”

HD현대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7조5549억 원, 영업이익 8799억 원을 기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4%, 영업이익은 86.2% 증가했다.

이로써 HD현대는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34조693억 원, 영업이익 1조6735억 원을 기록했다. 이런 호조세는 조선 부문 실적이 개선되고, 전력기기 및 선박 AM·디지털 솔루션 사업이 호조세를 이어간 데 따른 것이다.

2분기 실적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조선·해양 부문의 HD한국조선해양은 친환경 이중연료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매출이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한 6조615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선별 수주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생산 안정화를 통한 비용 절감 노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8.7% 증가한 3764억 원을 기록, 5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은 전년 동기 대비 26.7% 늘어난 3조8840억 원, HD현대삼호는 16.9% 증가한 1조8106억 원, HD현대



HD한국조선해양 컨테이너선

미포는 9.3% 증가한 1조1291억 원의 매출을 각각 거뒀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5.5%, 182.2% 증가한 1956억 원과 175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조선 부문의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특히 HD현대미포 역시 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에너지 부문의 HD현대오일뱅크는 매출 7조8440억 원과 영업이익 734억 원을 기록했다.

정제마진 하락과 휘발유·경유 등 경질유 제품군의 시황 악화로 1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하반기 산업 수요 증대 및 겨울철 난방유 사용 증가 등으로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제

품 공급을 늘려 수익성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

건설기계 부문의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고급미 기조로 인한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긴축 흐름이 2분기에도 지속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37.5% 줄어든 2조131억 원과 1694억 원을 기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글로벌 전력인프라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2.7% 늘어난 9169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57.1% 증가한 2100억 원을 달성하며 영업이익률 22.9%를 기록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 AM(After Market) 사업 호조세와 디지털 솔루션 사업의 확대에 전년 동기보다 20.2% 늘어난 437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9.6% 늘어난 710억 원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매출 1128억 원과 영업이익 79억 원을 기록했고, HD현대로보틱스는 매출 697억 원과 영업이익 3억 원을 기록, 두 계열사 모두 3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HD현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수익성 위주의 영업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엔컴퍼니그룹, ‘JR 에너지솔루션’ 지분투자 조현범 號 이차전지 분야 본격 진출

지분 15% 획득... 3대 주주 등극
“리튬이온배터리 셀 기술·제품 개발”

한국엔컴퍼니그룹이 리튬이온배터리(LIB) ‘전극’ 생산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차전지 분야 사업에 진출한다.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큰 이차전지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하는 한편, 기존에 영위하던 납축전지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는 국내 2차 전지 전극 파운드리 기업 ‘JR 에너지 솔루션’을 대상으로 90억원 규모 시리즈 A 투자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JR 에너지 솔루션은 리튬이온배터리 핵심 소재 ‘전극’을 스마트 팩토리 기술 기반으로 생산하는 유망 스타트업이다.

다수의 전문 인력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충청북도 음성군에 500MWh 규모의 전극 공장을 준공해 생산 역량을 확보했다.

한국엔컴퍼니는 이번 시리즈 A 투자를 통해 JR 에너지 솔루션 지분 15.20%를 획득하며 3대 주주이자 전략적 투자자로 파트너십을 맺었다.

한국엔컴퍼니 ES(Energy Solution) 사업본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



보하기위하여리튬이온배터리사업 진출에 관한다각적인검토와 함께 전략적 투자 대상을 모색해왔다.

최근 전기차 중심 모빌리티 대전환과 더불어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산 등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글로벌 리튬이온배터리 시장은 2030년까지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한국엔컴퍼니 관계자는 “지분 투자를 계기로 JR 에너지 솔루션과 리튬이온배터리 셀(cell)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엔컴퍼니는 2021년 4월 ㈜한국아트라스비엑스 흡수 합병을 통한 사업형 지주회사 출범 이후 조현범 회장(사진) 주도 하에 신성장 동력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엔컴퍼니 ES사업본부는 기존 차량용 및 산업용 납축전지 사업 영역에서 한발 더 나아가, LIB 비즈니스를 지속가능 성장을 이끌어 나갈 핵심 모멘텀으로 삼고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양성운 기자